

<'채권 파킹' 대량 손실...한투증만의 문제인가> - 연합뉴스포맷스

(서울=연합뉴스포맷스) 한창현 권용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면 조사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채권 파킹거래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파장이 서울 채권시장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특히 한국투자증권 채권중개팀이대 규모 손실 사고를 내면서 업계 전반에 관행화됐던 채권 파킹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3일 채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중개팀의 손실 내용을 감독 당국에 자진 신고하는 동시에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파킹거래란 매매 확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매수자가 자금이 부족할 때 채권을 잠시 중개인에 맡겨 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이다. 중개팀에서 채권을 매수한 뒤 '당일 팔자 및 선내고 사자' 등의 대응을 통해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파킹거래는 채권시장의 오랜 관행으로, 증권사의 중개북은 파킹거래를 통해 포지션 한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있었다.

채권업계 한 중개역은 "파킹거래를 통해 당일 손익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한 물량을 '당일 팔자'와 '선내고 사자' 등의 식으로 활용해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며 "파킹거래를 통해 중개팀의 포지션 한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차물량이 부족하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파킹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 중개팀의 포지션 한도(PL)를 감추는 용도로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파킹거래를 통해 10년 현물 2천억원 후반대에 이르는 규모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고, 40bp가량 금리가 오르며 약 100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하나의 중개팀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은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중개팀 파킹거래의 경우 수익을 낼 경우 엄청난 규모의 보너스를 챙겨갈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옮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례적으로 감독 당국에 자진 신고와 함께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증권사는 채권투자로 손실을 본 것은 맞지만, 파킹거래는 아닌 것으로 중간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와 달리 당사는 개인 투자한도가 없고 본부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걸로 돼 있다"며 "본부 한도가 5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 파킹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거래에 모자산운용사와 특정 대학 동문 출신이 있는증권사가 연루됐다는 루머도 서울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ywkwon@yna.co.kr

(끝)